

# 전남, 스마트팜 기술개발로 시 넘는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 특화 축종인 오리를 대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차 실증 과정에서 출하율과 출하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팜의 표준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4일 전남도와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AI(조류인플루엔자) 등 매년 피돌이되는 악성질병과 축산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위기에 빠진 오리 사육 농가를 위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개발에 나서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대외개발에 대응하고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효율적인 사육관리를 목표로 지난 2016년 해남 2개 농장에 이어 올해는 나주와 담양 2개 농장에서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

## 전국 최초 지역 특화 축종 오리 대상 ICT 이용 1차 실증 출하율·소득↑...표준모델 개발 박차

터 분석작업에 들어간다.

해남 2개 농장 1차 실증에서 스마트팜과 컴퓨터를 연결해 온도, 습도, 정전 및 화재관리 등 오리농장 내·외부환경과 사양관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농장 안팎의 CCTV를 통해 차단방역과 오리 상태를 자세히 관찰·분석했다.

ICT 기술 도입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출하율은 96%에서 98%로 2%포인트 증가하고 출하소득도 1회 1240여만원에서 1560여만원으로 23%가 증가했다.

안모니아농사가 6ppm에서 5.4ppm

으로 8% 감소하고, 깔짚수분도 60%에서 56%로 4% 감소하는 등 축사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런 분석 자료를 토대로 나주와 담양 농가에서 스마트 최적 표준모델 개발에 나선다.

스마트팜 육용 오리의 고온스트레스 경감과 육질 향상을 위해 천연 물질을 이용한 오리 사료 첨가제 효과를 규명한다.

또 기존 ICT 기반 환경관리와 제어시스템의 보완과 개선도 추진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오는 9월 중 스마트 축산 최적 표준모델 현장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적 표준 모델이 개발되면 오리 사육 농가에 대대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100개 농장 확산시 1회 당 소득은 7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남농업기술원은 내다봤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구민정 농업연구사는 "오리 사육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스마트팜 표준모델이 개발되면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오리사육두수는 383만 7000마리로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 동구, 산수시장 살리기 팔 걸었다

광주 동구가 관내 전통시장 중 하나인 산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수시장은 1974년 개설 이래 지난 2014년 전통시장으로 정식 등록했으나 대인시장(예술품화시장), 남광주시장(수산물특화시장)에 비해 특성화되지 않아 당초 조차된 상인회가 유명무실해지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에 동구는 민선7기 출범이후 전담팀을 신설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대 상권 특성화 IT팀'을 구성하고 산수시장을 '벽거러 및 마을장터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 서구, SNS캐릭터 해운이 홍보부장 임명

광주 서구의 핫스타 SNS 캐릭터 해운이가 3일 오전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서구청 홍보부장으로 임명됐다.

광주권 지자체의 유일한 SNS캐릭터인 '해운이'는 서구 마스코트인 해오리(해오라기)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것으로 따뜻하고 온정이 가득한 서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디자인에서부터 이름 선정에 이르기까지 서구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한 해운이는 금년들어 디자인 리뉴얼 및 표준 디자인 가이드 제작, 이모티콘 개발, 캐릭터 인형 제작 등 서구 홍보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운전저수지 벚꽃향연, 풍양호수 장미원 개장 등 서구청 행사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 남구, 양림동 도시재생 주민 제안사업 공모

광주 남구는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주도형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1차 양림지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양림동 주민들과 남구에 활동 기반을 둔 단체 및 조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다.

공모사업 참가 자격은 양림동 주민을 비롯해 양림동에 소재한 사업장과 직장, 학교, 민간단체 등에 몸담고 있는 3인 이상의 생활권자 모임이다.

## 북구, 골목재생 사업 김정호 거리 조성

광주 북구가 주민참여형 골목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는 "4일 문인 북구청장이 북동 98-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인 '김정호 거리' 조성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사업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밝혔다.

북구의 '김정호 거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17년 광주시 공모에 선정돼 2019년까지 시비 3억원을 들여 김정호 동산 조성, 김정호 스토리길 조성, 마을골목길 꾸미기, 음악다방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대상지가 북동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김정호 동산 조성 사업만 완료하고 2018년 1월부터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지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북구와 김정호 거리 조성 사업자인 마을주민협의체, 북동 재개발추진위가 사업 대상지를 최대한 보존하기로 협의하고 사업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김정호 거리'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광산구에서 신명나게 놀아볼 버스커 모여라"

광주 광산구가 21일까지 버스커를 공개모집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2019 테마가 있는 버스킹 (소화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릴레이 버스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산구가 구 여러 곳에서 신명나게 놀아볼 거리음악가를 모집하고 있는 것.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첫 선을 보인 소화길은, 올해 수원서관공원, 첨단동 도시미관정장에서 7~11월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릴레이 버스킹은 광주 관문인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동안 매주 수·목요일 진행된다.

임형택 기자

## 녹색소비생활 실천 다짐대회 성료

소비자교육 전남도지부, 지역민 등 100여명 참석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도지부(회장 이송자)는 지난 3일 강진군 여성회관에서 녹색소비생활을 실천하는 다짐대회를 갖

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회에는 100여명의 지역 주민과 여성지도자들이 참석했는데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안연순 원장의 '녹색소비생활의 이해와 실천'이란 주제의 특강이 있었고 이어서 '친환경제품 정확히 알고 고르게 소비하기' 정보전시회도 가졌다.

이송자 회장은 "참석자 모두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안쓰기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소비생활을 실천하여 자원절약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고 머그컵과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소비생활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오하근 전남도의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남도의회가 도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오하근 의원은 최근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장애인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좋은 조례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학대예방과 권리회복 강화를 위해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학대예방 및 권리회복을 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했고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 등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학대피해 장애인이 촉탁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이나 소송 수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오하근 의원은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로 인해 불편한 몸과 마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전남도 부회계본부장

## 광주·전남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 2차 지원 개시

오는 28일까지 신청·접수...시험·인증·컨설팅 등 최대 1억원까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중소기업 수출품목의 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2차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인증은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인정시험마크) 등 16개 국가의 393개 인증이며 이중 4개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용의

50~7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 내용으로 15일부터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년 이내에 인증획득을 추진한다.

올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3차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포털(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지난 1차에 총 28개사를 최종 선정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추진 중에 있으며, 3

차 지원사업은 오는 8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홍 청장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목포 · 장성 · 해남**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통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9년 1028 상소한정승인  
사 망 자 : 김영석 (550313-1663212)  
최 후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를 중앙53번길 23

위 망 김영석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6월 5일

공 고 인 : 김애화, 김맹금, 김차운, 김혜미, 김호진  
주 소 : 광주 북구 북문대로98번길 49, 340동 302호  
(운암동, 운암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6월 3일  
공고기간 : 2019. 6. 5 ~ 2019. 8. 5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 인 설 립                    ■ 기 장 대 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행신청  
■ 기 업 진 단                    ■ 의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 (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